

2016 년 11 월 13 일 찾아오신 예수님(12) “내게로 와서 마시라”(요 7:37-44)

<도입>

초막절 동안 물의 예식이 매일 거행됩니다. 순례객들은 아침마다 제사장들과 예루살렘 남동쪽에 위치한 실로암까지 행렬을 지어 시 113-118 을 부르며 내려가고 도착하면 예식 주관자가 물통에 연못 물을 담습니다. 그리고 다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. 그러면 제사장은 길어온 물과 준비된 포도주를 성전 제단에 뿌립니다. 이 때 군중들은 ‘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으리라’ 사 12:3 의 찬미가를 부릅니다.

이것이 생계와 연결되는 의미는 광야에서 목마른 조상들을 위해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심에 감사드리고 자신들에게도 비를 주셔서 추수할 수 있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리는 것입니다. 초막절 시기는 건조기 절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넉넉한 물을 주시기를 청합니다.

또한 영적으로는 모세와 같은 메시아가 와서 토라(모세 5 경)를 통해 **영적 생명의 물**을 흠뻑 내려줄 것을 간청하는 것을 포함합니다. 초막절 축제 7 일째 끝 날에는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 제단에 붓는 예식을 7 번 반복하고 희생 제물을 바치면서 내년에도 풍성한 비를 청하는 장엄 기도를 바칩니다.

바로 이 기도를 드리는 날, 예수님은 ‘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.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’ 외치셨습니다. 성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흘러 나올 것이라는 뜻입니다. 당신이 모든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밝히신 것입니다.

저는 지난 주간 예수님의 이 위대한 선언 앞에서 현재의 조국 사회와 미국사회를 바라보며 이 말씀을 곱씹을 때, ‘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’는 말씀이 과연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고민이 되었습니다.

[1]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, 어떻게 살아야 할까?

우리 나라 국정의 실태가 폭로되어 범국민적 난국에 처했는데, 이런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반응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? 최선의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우리는 한 걸음을 더 내다보고 국가를 섭리 가운데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미래에 대한 안목이 얻어야 합니다.

상처를 도려내면 그 자리에 새 살이 돋는 원리를 생각할 때 부패를 도려낸 자리에 새 시대와 새 삶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. 이런 희망이 없으면 우리는 현재 부패를 비판하고 척결하는 데만 붙들리게 될 것이며,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경로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.

이 기회가 새 시대를 가져오게 하는 전환점이 되도록 마음을 열고 기도해야 합니다. 짧아도 좋습니다. 주님께 나아가 개인적 삶의 목마름을 넘어서 조국 땅의 목마름을 채워 주소서라는 기도가 절박합니다. 그리고 목마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무엇보다 **주님의 약속의 말씀**을 믿는 믿음이 요구됩니다.

[2] “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리라”

목마름이 해소되면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습니다. 나의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충만할 것을 약속하십니다. 본문의 시점은 주님의 영광의 시점(십자가) 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 안에 아직 계시지 않지만 우리는 성령의 강림 이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
그러면 자기 존재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약속이 이루어질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? 성령의 역사가 넘치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인한 사람이 되고 신기한 능력과 지혜로 사람들을 리드해 가게 될까요? 아닙니다. 만일 이렇게 생각한다면 성령을 오해한 것이고 약속의 성취를 맞볼 수 없습니다.

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는 차원에서는 **겸손하고 희생적인 모습**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. 성령은 겸손하셔서 자신을 드러내기 보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을 증거하십니다. 또한 죽음과 부활의 진리 안에서 살도록 우리를 인격적으로 도우시는 분입니다. 강압하지 않습니다.

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흘러 넘치면 겸허한 자가 됩니다. 겸허함 속에서만 속사람은 평강과 위로로 강건해집니다. 또한 희생적인 사람이 됩니다. 내가 무엇을 내어주어야 할까 라는 질문 앞에 진지해집니다. 또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함께 나의 무엇이 죽어야 할까를 생각하게 됩니다.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성령의 도우심입니다.

행 5:41 에서 사도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고난 받고 매 맞을 때 오히려 영광스럽게 여긴 것은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활동 때문이었습니다. 이들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또는 진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삶이 참 만족의 길임을 확신했습니다. 그리고 그 삶이 새 시대와 새 삶을 기대하게 합니다. 진정으로 조국과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대한 공훈과 새날에 대한 기대는 겸손하고 희생적인 모습 안에서 점점 분명해집니다.

아마도 우리가 한국 사회에 머물고 있다면 시위나 시국 선언에 참여할 수도 있고, 시민 단체에 몸을 담을 수 있습니다. 그런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난국에서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는 약자들을 보살피는 일입니다.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런 난국에 대해 불필요한 말을 듣고 편견과 비관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야 합니다.

<맺음>

주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면 우리는 자기 중심적 예고와 방식에서 벗어납니다. 나의 어떤 것을 주장/자랑하고 드러내려는 대신 겸손하고 희생적인 성령의 역사 속에서 과연 나의 무엇을 어떻게 드러야 하고 어떻게 사용되어야 할까를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. 이것이 인간과 세상의 참 만족을 향한 길입니다. 이것을 위한 주님의 크신 도우심이 채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.

<나눔의 질문들>

1. 현재의 조국과 미국, 양 사회를 바라볼 때 사람들의 목마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? 주님께서 해결해주실 수 있는 목마름을 내어놓으며 기도하고 있습니까?
2. 그리스도인들은 이 때에 어떤 미래의 그림을 마음에 그릴 수 있을까요? 각자의 생각을 나누어 보십시오.
3.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? 38 절의 말씀이 현시대에 적합성있는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까? 약속이 성취될 때 나에게 일어나는 축복은 무엇일까요?